

있게 되었다.

연자들은 우리나라 건강성인에서 뇌국소혈류량의 표준 정상치를 구하기 위해 만 24세에서 69세까지의 건강한 한국인 오른손잡이 성인 60명(남자 48명, 여자 12명)에서 Obrist의 그 compartmental analysis방법에 따라 ¹³³Xe 가스 흡입법으로 국소뇌혈류량을 측정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각 국소뇌혈류 평균은 Fg 74.8±13.3 ml/100 g/min, Fw 19.2±3.1 ml/100 g/min, CBF(inf) 39.8±7.6 ml/100 g/min, Wg 44±5.4%였다.

2) 반구내 국소간 혈류분포양상을 보면 Fg, Fw, CBF(inf)는 양반구의 전두엽에 높고 두정엽에 낮은 차를 보였고, Wg는 양반구의 후두엽, 측두엽에 높고 전두엽에 낮았다.

3) 95% 신뢰한계의 뇌국소혈류치의 국소간 변이의 정상범위를 국소혈류치의 반구혈류 평균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면 Fg 12%, Fw 12%, CBF(inf) 10%이내였다.

4) 연령증가에 따라 Fg, CBF(inf) 및 Wg는 점차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32. 피로골절환자에서 골주사 소견과 방사선 소견의 비교

국립경찰병원 내과

고광섭 · 김재영 · 강성구
김소연 · 이권전

피로골절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근육의 작용에 의해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정상골에 가해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조기진단이 합병증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1985년 5월부터 18례를 관찰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피로골절로 진단된 18예중 남자는 15명, 여자는 3명이었고 연령 분포는 15세부터 20세까지 9명, 21세부터 25세까지 9명이었다.

2) 직업별 분포는 보면 전투경찰이 9명, 운동선수가 8명, 일반인이 1명으로 운동선수는 달리기 선수가 가장 많았다.

3) 피로골절로 진단된 18례에서 증상발현일 1주부터 5

개월 사이에 골주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양성소견을 보였다.

4) 방사선검사에서는 18례중 9례에서 양성소견을 보였으며, 음성소견을 보인 9예중 추적검사 결과 2례에서는 골주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인후 각각 3주 및 5주후(발병일부터 각각 4주 및 8주)에 양성소견을 보였다.

5) 5개월 후에 검사를 시행한 2례에서는 방사선검사는 양성이었으나 골주사에서는 단지 미약한 동위원소축적을 보였고, 이 당시 임상소견은 거의 소실된 상태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골주사가 피로골절의 조기진단에 있어서 방사선검사와 비교하여 예민한 검사로 사료되며, 또한 수개월이 경과한 회복기에는 동위원소축적의 감소를 보여 임상증상과도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33. 大腿骨頭 無血性壞死의 診斷에 대한 腎신티그라피 및 單純X-線寫眞의 比較研究

慶熙醫大 放射線科

李日成 · 李善和 · 安致烈

大腿骨頭 無血性壞死의 早期診斷 및 治療는 豫後에 中대한 影響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診斷方法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널리 利用되는 것으로 臨床檢査, 單純X-線攝影, 腎신티그라피, 生檢 및 骨髓壓測定法 등이 있다.

著者들은 慶熙大學校 醫科대학 附屬病院에서 骨盤의 單純X-線攝影 및 腎신티그라피를 併用한 患者들중 骨髓壓測定 및 病理學的으로 骨壞死로 確診된 25명의 患者, 46例의 X-線寫眞 및 신티그라피 所見을 比較分析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大腿骨頭 無血性壞死에 대한 單純X-線寫眞의 診斷의 敏感度는 67%, 신티그라피는 93%였다.

2) 腎신티그라피 所見은 大腿骨頭의 放射能蓄積의 減少部位 및 이를 둘러싸는 多樣한 程度의 放射能蓄積의 增加였다.

3) 單純X-線寫眞上 骨變化가 觀察되지 않은 15例중 12例에서 腎신티그라피상 非正常所見이 觀察되었다.

4) 單純X-線寫眞上 大腿骨頭 無血性壞死의 期가 높아질수록 신티그라피상 增加된 放射能蓄積의 範圍 및 強度가 심해졌다.